

칠레의 TPP 활용 전략 및 시사점

- 이시은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suyi@kiep.go.kr, Tel: 044-414-1267)

차 례 ●●●

1. 칠레의 TPP 참여 현황
2. 칠레의 TPP 참여 목적과 전략
3. 시사점

주요 내용 ●●●

- ▶ 칠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의 모태인 P4(Pacific 4)의 최초 가입국으로 TPP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국회에서 TPP 비준 여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칠레는 TPP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개방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유일하게 나머지 11개 TPP 회원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2015년 기준 대TPP 회원국 교역 규모는 칠레 총교역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
- ▶ 칠레의 TPP 참여 목적과 전략은 ① 아시아 시장 접근성 강화, ② 기 체결 FTA 심화와 새로운 통상주제에 대응, ③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로 대별됨.
 -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회원국들의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환경, 노동, 지적 재산권, 규제 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등 새로운 통상 분야에 대한 기준 마련을 기대함.
 - 한편 TPP 협상에서 칠레가 민감하게 고려했던 분야는 지적재산권으로, 기술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해당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교역품목을 다양화시키고자 하며, 누적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하여 GVC 참여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 세계은행에 따르면 TPP 발효시 칠레는 2030년까지 1%의 GDP 증가, 5%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됨.
- ▶ TPP 발효 시 칠레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은 칠레와 새로운 경제교류 증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칠레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1. 칠레의 TPP 참여 현황

■ 칠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의 모태인 P4(Pacific 4)의 최초 가입국으로 TPP에 참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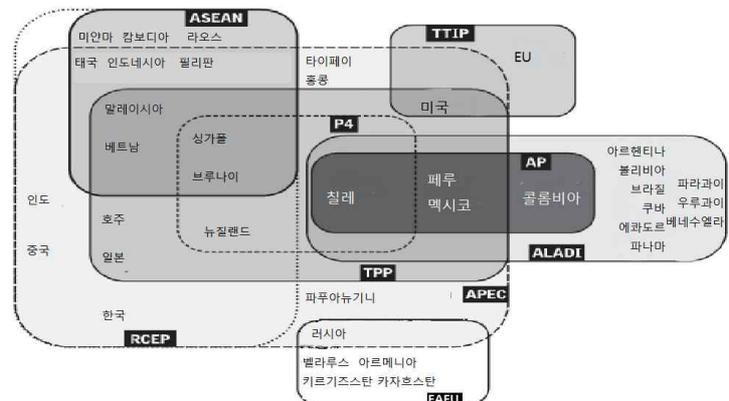
- P4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경제 국가들인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가 2005년 체결한 FTA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라고도 하며, 이후 미국, 호주 등이 참여하며 확대, 발전됨.
- 중남미 지역에서는 페루(2008년), 멕시코(2012년)가 TP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협상 타결 이후, 3개국 모두 국내 비준을 준비하고 있음.
- 칠레는 의회에서 7월부터 논의를 거쳐 오는 2016년 9월 1일, TPP 비준 여부 투표를 실시할 예정임.¹⁾²⁾

표 1. 칠레의 FTA 체결 현황

국가	발효	국가	발효
볼리비아	1993	페루	2009
베네수엘라	1993	호주	2009
MERCOSUR	1996	콜롬비아	2009
캐나다	1997	에콰도르	2010
멕시코	1999	터키	2011
중미*	2002	말레이시아	2012
EU	2003	홍콩	2014
한국	2004	베트남	2014
EFTA	2004	태국	2015
미국	2004	인도	2007
중국	2006	파나마	2008
P4	2006	쿠바	2008
일본	2007		

주: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2002), 온두라스(2008), 과테말라(2010), 니카라과(2012).
자료: DIRECON.

그림 1. 칠레의 경제통합체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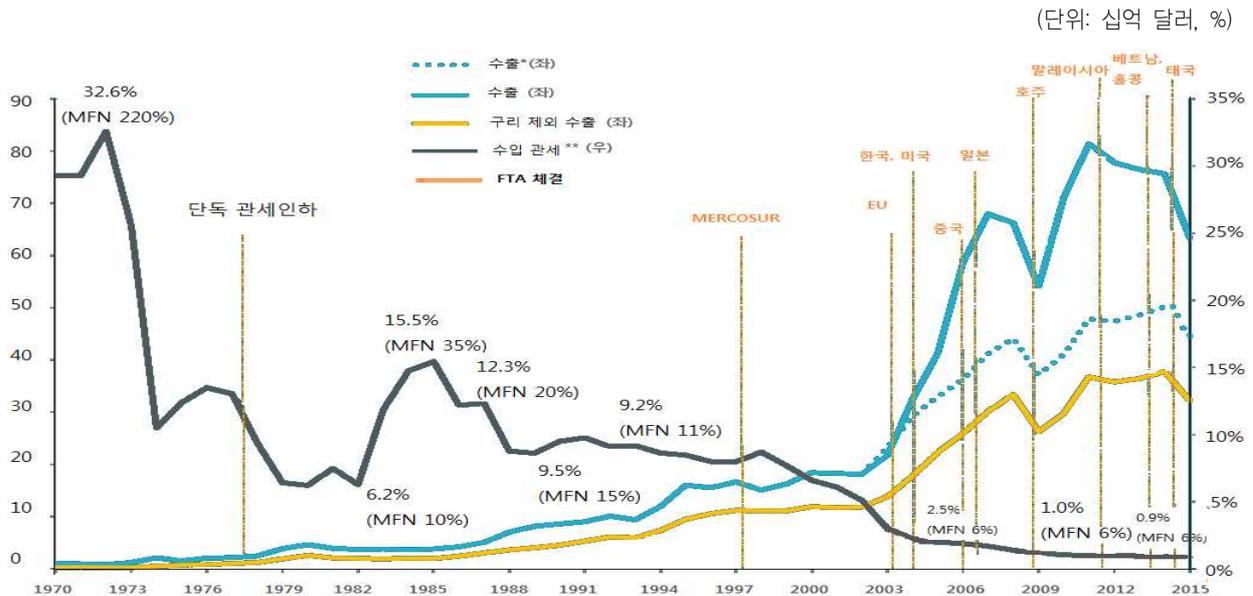


■ 칠레는 TPP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 개방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유일하게 11개 TPP 회원국 모두와 FTA를 체결하였음(표 1, 그림 1 참고).

- 소규모 개방경제인 칠레는 지난 35~40년간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체결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해왔으며, 현재 국가마다 개방 수준은 상이하나 전 세계 64개국과 25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음.
-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2014년 기준 77.6%에 달하며, 칠레 상품의 95%가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음.³⁾
- 또한 최근 3년간 칠레의 실효 관세율은 평균 0.9% 수준으로 매우 낮음(그림 2 참고).

1) DIRECON, Acuerdo Transpacífico(<https://www.direcon.gob.cl/tpp/>, 검색일: 2016. 5. 3).
2) 멕시코의 경우 2016년 4월 27일 TPP 비준 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16년 9월, 늦어도 12월 15일을 넘기지 않고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페루의 경우 TPP 비준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중임.
3) 국제무역연구원(2015),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2015년 전망」.

그림 2. 칠레의 실효관세율과 수출(1970~2014)



자료: DIRECON.

■ 2015년 칠레의 대TPP 회원국 교역규모는 전체 교역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표 2 참고).⁴⁾

- 칠레의 대TPP 회원국 수출은 188억 달러, 수입은 180억 달러로 칠레 전체 수출입의 19%, 29%를 각각 차지함 (2015년 기준).
- 전체 수출 중 구리와 같은 광물자원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은 연어, 블루 베리, 타이어 등임(표 3 참고).
- 반면 칠레는 TPP 회원국들로부터 휘발유, 자동차 그리고 TV나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을 주로 수입함.
- 한편 TPP 회원국 중 칠레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은 미국이지만, 중국이 칠레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7%(2015년 기준)로, 전체 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⁵⁾

표 2. 칠레의 대TPP 회원국 교역(2010~15)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FOB)	20,583	24,974	24,211	23,327	22,814	18,889
구리	9,063	10,647	10,499	9,717	8,378	6,053
구리 외 광물	1,279	1,865	1,462	986	785	841
수입(CIF)	18,283	24,487	27,922	25,468	22,949	19,241
수입(FOB)	27,153	23,090	26,472	24,000	21,625	18,027
무역수지	3,429	1,884	-2,261	-674	1,189	863

자료: DIRECON, Banco Central de Chile.

4) DIRECON, Acuerdo Transpacífico(<https://www.direcon.gob.cl/tpp/>, 검색일: 2016. 5. 3).

5) Departamento de Estudios(2016), DIRECON, Ficha Grupo: Chile-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표 3. 칠레와 TPP 회원국들간 주요 교역품목(2015)

HS code	수출	백만 달러	HS code	수입	백만 달러
26030000	구리	3,244	27101940	석유	2,598
74031100	음극동(Cathode copper)	2,269	87032391	1500~3000cc 자동차	881
3044120	대서양 연어 살	723	85287220	TV	388
74020010	정제 구리	473	27011220	역청탄(bituminous coal)	338
3031220	태평양 연어 살	462	27101222	가솔린	327
71081200	금	364	27111200	액화프로판가스	275
40111000	고무타이어	339	87032491	3000cc 이상의 자동차	241
8104029	블루베리	328	84715000	정보처리장치	228
44091022	송백류 목재	261	40119400	고무타이어	204
3048120	냉동 연어	259	85171200	핸드폰	184

자료: Departamento de Estudios, DIRECON, Banco Central de Chile.

2. 칠레의 TPP 참여 목적과 전략

■ 다음에서는 칠레의 TPP 참여 목적과 전략을 ① 아시아 시장 접근성 강화, ② 기 체결 FTA 심화와 새로운 통상주제에 대응, ③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로 나누어 살펴봄.

가. 아시아 시장 접근성 강화

■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면서 칠레의 주요 교역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하였음.

- 칠레는 2004년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태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P4를 체결하며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시켜 왔음.
- 칠레 전체 교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약 26%에서 2015년 약 42%로 증가하였음.⁶⁾
- o 칠레의 대아시아 수출은 2003년 68억 달러에서 2015년 32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38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증가함.
- 또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칠레 투자 역시 200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
- 칠레는 아시아 지역에 구리나 수산물과 같은 1차 산품을 수출하고,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는 핸드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품을 주로 수입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6) DIRECON-PROCHILE.

그림 3. 칠레의 지역별 교역 비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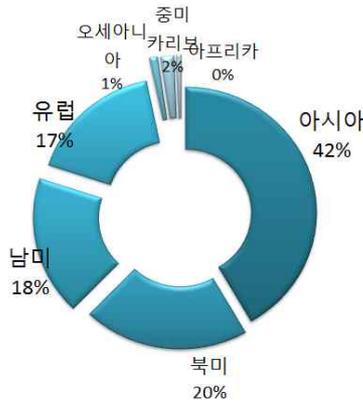


표 4. 칠레의 대아시아 국가별 교역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국가	FTA 체결연도	교역규모 (2014기준)	전체 교역 중 비중(%)
중국	2006	33,534	22.7
일본	2007	9,854	6.7
한국	2004	6,997	4.7
인도	2007	3,302	2.2
베트남	2014	762	0.5
말레이시아	2012	433	0.3
P4(싱가포르, 브루나이)	2006	360	0.2
홍콩	2014	318	0.2
대만	-	2,196	1.4
태국	2015	1,083	0.7

주: 이외에 현재 칠레는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임.
자료: DIRECON.

표 5. 아시아 국가들의 대칠레 직접투자규모(1974~2015)

(단위: 천 달러)

	1974-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일본	2,817,956	340,616	1,484,690	2,534,160	2,524,905	593,076	184,296	10,479,699
중국	84,620	376	9,754	9,187	12,336	420	184,186	300,879
한국	40,371	-	158,380	-	14,920	16,769	-	230,440
인도	27,107	-	-	-	-	-	-	27,107
말레이시아	22,923	-	-	-	-	-	-	22,923
대만	10,578	555	2,973	-	-	-	-	14,106
싱가포르	4,352	-	-	-	-	-	-	4,352

주: 2015년은 1~9월까지의 통계수치.
자료: Studies Department DIRECON-PROCHIL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자료 기반.

■ 칠레 정부는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회원국들의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⁷⁾

- 칠레는 아시아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여 왔지만 미국, 멕시코, 호주 등과 달리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왔음.
- 특히 칠레 정부는 지금까지 예외 적용으로 인한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수출되었던 육류나 과일 과 같은 상품들의 아시아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존 양허수준에서 나아가 관세인하 시기를 단축시키거나, 관세 인하폭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7) DIRECON, Acuerdo Transpacífico(<https://www.direcon.gob.cl/tpp/>, 검색일: 2016. 5. 10).

표 6. TPP 체결을 통한 아시아 시장 개방 수혜산업

분야	내용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칠레의 육류 수출 35%가 TPP 회원국 시장으로 수출되며 이중 절반은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수출(1억 4,600만 달러) - TPP 발효 시, 소, 닭, 돼지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말레이시아시장 개방이 기대
식료품(파스타, 쿠키, 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 6,600만 달러 수출 중에서 22.7%가 TPP 국가들(미국, 멕시코, 페루)로 수출 - 아시아 시장에 대한 식료품 수출은 지금까지 부진했으며, FTA 체결시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에 대한 예외를 설정 - TPP발효로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 증가 기대 - 예를 들어 일본과의 FTA에서 칠레의 시리얼, 유아용 식품은 관세혜택에서 제외되었으나, TPP를 통해 일정부분 무관세를 즉시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임.
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의 과일 수출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며, 일부 FTA를 통해 관세 혜택 적용에서 제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중 42%가 TPP회원국으로 수출 - TPP를 통해 기존에 제한된 관세혜택을 받아왔던 지역, 특히 아시아와 베트남에 대한 관세 절감 혜택을 기대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의 전체 유제품 수출 7,400만 달러 중에서 3,500만 달러가 멕시코와 페루 등 TPP 회원국으로 수출 - 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대일본 수출 증가 기대
마른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의 마른과일 수출에서 대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여, TPP 체결을 통해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베트남의 경우 양자협정에서 10~13년 안에 관세 철폐를 합의하였으나 TPP를 통해 기간을 3~4년으로 단축시킬 전망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은 칠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이나 현재 TPP회원국에 수출되는 비중은 32%에 불과 - 와인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의 FTA 체결 시, 각각 16년, 11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 부여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태평양산 연어 등 일부 수산물의 경우 FTA의 협상품목에서 제외되어왔으나, TPP 발효시 일본과 베트남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

자료: DIRECON.

■ 농업 외에도 아시아 회원국들의 임업 분야와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칠레의 목재 수출은 8억 6,400만 달러이며 이 중 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72%에 달함.
- 칠레의 목재는 주로 북미로 수출되어 왔으나, 일본과 말레이시아같이 기존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칠레 정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양자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조달시장 분야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⁸⁾

나. 기 체결 FTA 심화와 새로운 통상 주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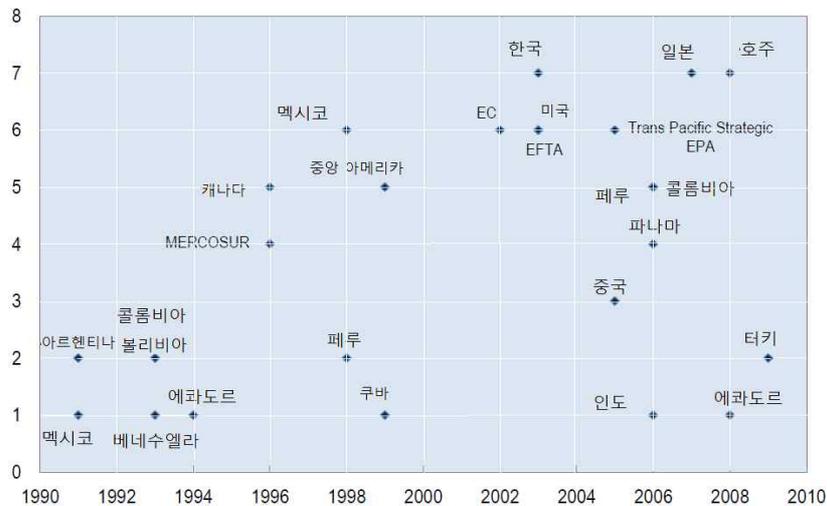
■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규제 통합(Regulatory Coherence) 등 새로운 통상

8) DIRECON(2015), "TPP Dará Acceso al Mercado de Compras del Sector Público de Perú, Malasia y Vietnam."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상품무역 부문을 제외하고 칠레가 TPP 11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는 다루고 있는 협정의 범위가 각기 상이함.
- 일례로 지금까지 칠레와 양자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와는 FTA 상에서 투자 관련 내용을 미래 협상과제로 남겨둔 상태였으나, TPP를 통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칠레의 기체결 FTA중, TPP의 협상 범위가 가장 유사한 FTA는 칠레-미국 FTA로, 칠레가 체결한 FTA 중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음.
- o 특히 칠레-미국 FTA는 유일하게 자금의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경제적 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반면 칠레가 호주, P4와 체결한 협정상에는 ‘환경’과 ‘노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캐나다와 체결한 FTA상에는 ‘지적 재산권’이 미포함되어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일본과의 FTA에는 공공조달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림 4. 칠레가 체결한 국별 경제협정의 범위



주: 1) 위수치는 각 국가와 체결한 경제협정이 서비스무역, 투자보호, 무역기술장벽(TBT),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공공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중 포함하고 있는 세부협정의 수를 의미함.

2) 칠레는 멕시코와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가입을 통해 1991년에 양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더 심화시켜 1998년 양자간 FTA를 체결함.

자료: DESTA database(Dü r et al., 2014), OECD Diagnostic of Chile's Engagement in Global Value Chains에서 재인용.

■ 한편 TPP 협상에서 칠레가 가장 민감하게 고려했던 분야는 지적재산권으로, 기술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해당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특히 칠레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자국의 제약산업이나 IT 분야 등 혁신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함.
- 그러나 ‘생물의약품의 정보 보호기간’의 최소 5년 인정과 관련해서 칠레 정부는 자국에서 기존에 인정해오던 보호기간 5년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함.

-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내 의약품 가격상승 가능성 우려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10년 전부터 적용되어왔던 수준을 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함.⁹⁾

표 7. 칠레와 TPP 회원국간 양자 FTA가 포함하는 분야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공공조달
호주	○	○	○	○	X	X	○
브루나이	○	○	X	○	X	MOU	○
캐나다	○	○	○	X	○	○	○
미국	○	○	○	○	○	○	○
말레이시아	○	X	X	X	X	X	X
멕시코	○	○	○	○	X	X	○
뉴질랜드	○	○	X	○	X	MOU	○
페루	○	○	○	한 단락 언급	X	X	X
싱가포르	○	○	X	○	X	MOU	○
베트남	○	X	X	X	X	X	X
일본	○	○	○	○	부속 서신	부속 서신	X

자료: Carlos Furche(2013), “Chile y las Negociaciones del TPP: Análisis del Impacto Económico y Político.”

다.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

■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1차 산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와 교역 품목을 다양화시키고자 함.¹⁰⁾

- 2014년 기준 중국은 대아시아 교역의 약 50%, 칠레 전체교역의 22.7%를 차지하였는데, 2000년대 중국의 고성장기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는 칠레의 수출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칠레의 구리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치자, 경제구조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는 TPP가 자국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나 교역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투자유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칠레는 TPP 누적 원산지 규정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효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 칠레 정부는 누적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TPP 회원국에 대해 일부 원자재만 공급하거나 제조 공정에만 참여하더라도 특허 지위를 잃지 않고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자국의 대아시아 교역 방식과 품목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음.

9) Andres Rebolledo(2015), “En TEmas Sensibles de Propiedad Intelectual: No Fuimos Más Allá del TLC con Estados Unidos,” DIRECON.

10) GRI(2016), “TPP: What it means for Latin America.”

- 그러나 구리와 같은 천연자원을 제외한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칠레 기업들이 GVC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우려,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참여 모델을 강구하고 있음.

표 8. 칠레의 GVC 참여 방안 예시

최종재	
열대 과일	페루로부터 무관세로 파인애플을 수입하여 이를 칠레에서 보존 처리, TPP회원국에 특혜관세로 수출 (기존에 이러한 특혜는 파인애플이 칠레산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음.)
열대 목재 가구	누적원산지규정을 통해, 페루나 기타 회원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칠레에서 가구를 제조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
중간재	
과일	칠레에서 딸기즙을 수출, TPP 회원국(아시아)에서 이를 제조하여 회원국에 특혜관세로 수출
제조 공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디스플레이 패널(panel)의 부품을 수입해 칠레에서 생산 공정을 거쳐 페루 등으로 국가로 수출

자료: DIRECON.

3. 시사점

■ 세계은행에 따르면 TPP 발효시 칠레는 2030년까지 1%의 GDP 증가, 5%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됨.¹¹⁾¹²⁾¹³⁾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2025년까지 칠레의 연간 수출이 26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추정함.
- 칠레 정부는 TPP를 통해 전체적으로 1,600여개의 상품에 대한 추가적 관세 인하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돼지, 소고기, 레몬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칠레는 TPP 체결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 체결 FTA 내용을 개선한다는 포석임.

- 아시아 국가들이 예외를 통해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었던 농산물이나 육류, 유제품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세 인하 이전에도 수출이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TPP 체결 시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은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¹⁴⁾

11) World Bank(2016), "Potential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Global Economic Prospects.

12)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멕시코는 4%, 페루는 10%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

13)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TPP 체결을 통해 칠레의 GDP는 2025년까지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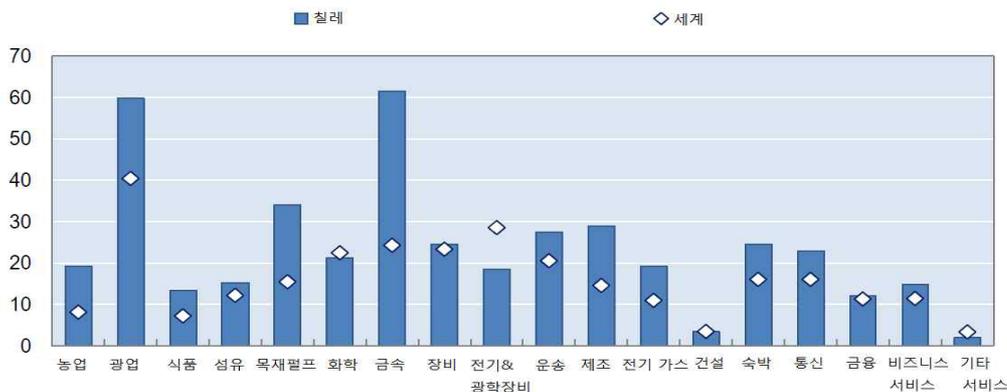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AP)은 TPP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 태평양동맹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가 2012년 출범시킨 경제통합체로, 역내 교역품의 92%에 대한 관세 철폐, 자본시장 통합, 인적, 문화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은 기 체결된 FTA 네트워크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들을 포함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이루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기존 4개국 간 무역협정에서 발전하여 지적재산권, 투자와 무역과 관련된 규정들의 조화 및 통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TPP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음.

■ TPP 발효 시 칠레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은 칠레와 새로운 경제교류 증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은 칠레와 2004년 FTA 체결을 통해 무역증진의 효과를 보았으나 칠레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인해, FTA 후발주자인 중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FTA 선점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주목하여야 함.
-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FTA 체결 전인 2003년 5억 달러에서 2014년 2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출품목 역시 다양화되었으며, 수출 기업수도 약 3배 가까이 증가함.¹⁶⁾
- 그러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6.8%에서 2014년 3.2%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12.7%에서 16.9%로 급증하였음.¹⁷⁾

그림 5. GVC에서 칠레의 비교우위 산업: 국내 부가가치 대비 수출 부가가치 비중



자료: OECD.

14) Financial Times(2015), "The TPP: widening Latin America's economic divide."

15) Brookings Institution(2015), "What the TPP means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6) 제현정, 명진호, 이혜연(2014), 『한국의 FTA 10년의 경제적 과실: 한국의 FTA 10년 성과 ②』, 국제무역연구원.

17) 권기수 외(2015),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 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칠레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¹⁸⁾

- 현재 한국의 대칠레 교역과 투자 모두 구리와 같은 광물 부문에 대한 편중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칠레는 전통적으로 비교우위가 강한 구리산업이나 임업 등을 제외하고 GVC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나, 칠레 정부는 자국 경제의 높은 천연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한 상황임.
- 특히 구리산업 외에도 칠레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금속이나 제조업 부문 등 새로운 산업에서 한·칠레 간 GVC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그림 5 참조).¹⁹⁾ KIEP

18) 권기수 외(2015).

19) OECD(2015), "Diagnostic of Chile's Engagement in Global Value Chains."